

2005 주제기획전 | <점점 발전소 Power Station>

마로니에미술관은 2003년부터 미술관 중장기 발전 리노베이션 계획을 수립하면서 미술관에 대한 고민을 전시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로니에미술관의 주제기획전은 공간을 주제로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연구와 의견을 내는 하면 작가들의 작업을 통한 체험전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수용자적 관점에서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을 제시한 <구름 Rolling Space>에서 보다 더 발전하여 올해의 주제기획전 <점점 발전소 Power Station>는 공간을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시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전시를 만드는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공간에 개입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범위의 활동을 통해 공간이 변이되어가는 과정에 주목합니다. Power station 발전소는 일반적으로 전력을 발생하기 위한 원동기와 발전기 및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갖춘 곳을 말합니다. 발전소는 열에너지 또는 기계적 에너지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킵니다. <점점 발전소>는 이 공간을 점유하는 사람들의 활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에너지가 점진적으로 팽창·변환되는 의미를 가지며 이것들이 공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점점 발전소 Power Station>의 의미를 살펴보면, 미술관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 즉 전시공간, 작품, 작가, 관객, 미술관 내부, 미술관 외부환경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창출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에너지와 다양한 사고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에너지들이 미술뿐만 아니라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적 입장에서 미술관을 접근함으로써 이들의 고유의 작업 혹은 제안방식이 만들어낸 관객과의 인터랙티브한 작업을 통해 구체화되고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Station이라는 단어가 장소, 거쳐가는 정거장, 사업소, 사무소, 방송국, 동물과 식물의 서식지, 무언가 쌓여지는 곳 그리고 고여에서는 정지상태 혹은 자세의 의미로 나타내어지는 것처럼, 전시기간 동안 마로니에미술관은 작가들의 작업이 진행되는 공간, 작업을 보여주는 전시공간, 관객들이 각 작가들의 작업에 개입하는 행위들이 모두 하나의 Station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관객들과 작가들의 상호 활동으로 피드백되어 드러난 에너지가 Power Station으로 구체화 됩니다. 따라서 <점점 발전소 Power Station>는 미술관이란 공간이 더 이상 신성화된 장소가 아니라 생활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장소로서 일상의 확장된 장임을 시사합니다.

참여작가는 김나영, 김수범, 김수연, 김신일, 박지은, 송재호, 안규철, 이주영, 윤사비, 오세환, 접는 미술관 그리고 다수의 관객들입니다.
문의 : 760-4724

전시개요

전시명 : 점점 발전소 Power Station
전시기간 : 2005. 5.20(금)~7.10(일),
매주 월요일 휴무
전시공간 :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제1·2
전시실 및 소갤러리,
원도우갤러리 앞
컨테이너

참여작가 : 김나영 김수범 김수연
김신일 박지은 안규철
이주영 윤사비 오세환
접는 미술관 송재호

